

# 형태 아닌 내면 찾는 구도자



김호석 화백은... 홍익대학교 동양화과와 동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교수로 역임했다. 국립현대미술관 '1999년 올해의 작가-김호석 전'을 비롯해 22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300여 차례의 단체전 및 기획 초대전에 참가했다. 2000년 광주비엔날레 한국대표작가로 선정되어 미술기자상을 수상했다.

알고 있었다. 성철 스님의 형상만이 아닌, 그의 내면을 품은 그림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벽에 걸린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어려운 일이었다. 성철 스님의 삶을 알지 못하는 김 화백으로서의 원택 스님의 주문이 높은 벽으로 다가왔다. 김 화백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뒤로하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성철'을 찾아 나선다.

'성철'을 따라가 '성철'을 그리다  
김 화백은 스님의 태 자리부터 시작한다. 스님이 앉았던 곳에 앉아보고, 스님이 걸었던 길을 걸었다. 스님이 읽었던 책들을 읽고, 스님의 범문을 찾아 듣고, 스님의 생각에 닿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 '성철'을 더듬었다. 그렇게 그는 성철 스님의 수행처를 모두 훑으며 '성철'을 마음속에서 조금씩 그려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화백은 방 안 가득 붙여놓았던 스님의 사진들을 모두 떼어낸다. 그리고 붓을 들어 '성철'을 그리기 시작한다. 더 이상 사진은 필요 없었다. 화가 김호석의 메모리에 척고상처럼 저장되어 있던 '성철'의 형상이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다. 김 화백은 기법적인 측면에서도 철저하고 새로웠

니까야서 길을 묻다 10. 불교 명상의 의미 ①

## '마음의 힘' 키우는 명상

축구 경기를 떠올려보자. 뛰어난 경기력이 발휘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남보다 빨리 달리기, 몸의 균형을 잃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공을 밀고 가기, 상대방의 움직임을 미리 읽어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으로 패스하다가 가장 효과적으로 슈트를 시도할 줄 아는 능력 등일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설정에서는 상대방에 따라 요구되는 상황 또한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제출할 수 있는 답안 또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에서 10분 정도의 체력이 아마도 그의 한계일 것이다. 이 말은 일상에서 누구나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선'이나 '명상'이나 하는 공부가 왜 필요한가에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즉, 불교 명상의 본연 중 하나는 일상을 꾸러가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집중력'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는 말이다.

초기불전에 따르면, 불교 명상은 두 가지 방향의 힘을 키우는 훈련이다. 하나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사유하고 있는 대상의 움직임을 간파해내는 능력이다. 초기불교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측면을 사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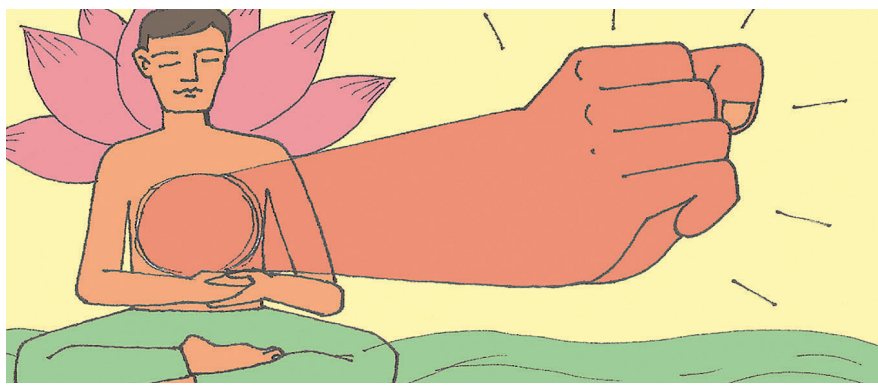


그림 · 나은영

실었다. 즉, 계율은 경기를 진행하는 규칙이고,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개인기 능력을 지혜로 대입시켜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흔히 '선, 선정, 조사선, 간화선, 위빠사나' 등으로 표현되는 불교의 명상은 축구 경기로 바꾸어 말하면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다.

다 수행으로, 마음이 대상의 움직임을 온전하게 제대로 살펴보고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움직임의 문법'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위빠사나(觀)로 제시하고 있다. 팔리어 원어로는 사마타/위빠사나의 틀이요, 일상어로 말하면 '마음 집중하기/대상의 움직임을 통찰하기'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즉, 불교 명상의 성격은 크게 '몰입 유형(사마타)'과 '관찰 유형(위빠사나)'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물론 조사선의 경우를 고려하면 이러한 틀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간극이 분명히 있겠지만, (니까야)를 근거로 하는 불교명상의 출발점을 헤아려보면 이와 같은 설정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체력의 밀바탕이 없으면 축구선수가 제대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없듯, 마음의 힘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우리는 자신의 일상을 제대로 꾸러갈 수 있을까? 불교명상의 하나의 면모인 '마음 집중하기'는 이 점을 먼저 묻고 있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명상의 문화를 온전하게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일반인들도 경기장에 들어가 선수들처럼 경기에 임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연습이 잘 된 사람이라면 90분을 장애 없이 뛸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경기장에서 10분의 시간조차 충실하게 보내기조차 버거울 것이다. 그것은 연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의 명상이 추구하는 하나의 면모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훈련'이다. 마치 축구선수가 90분의 경기에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할 준비를 갖추어 경기에 임하듯이, 참된 삶의 본연을 찾아나서는 학인이라면 먼저 마음의 힘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진단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다.

누구나 경기장에서 뛸 수는 있다. 그러나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은 5분

## 산문 밖의 禪

선화가 김호석 화백

불교를 자신의 종교로 생각해본 적도, 공부를 해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선(禪)의 세계를 궁금해 하고 다가가고 있다면, 그 상황의 근거와 과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선의 세계가 불교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불교 안에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아마도 '산문 밖의 선'이 아닐까. 국립현대미술관이 선정한 '1999년 올해의 작가'이며 한국 수묵화의 일면을 일구고 있는 김호석(59) 화백이다. 그는 1994년 성철 스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국 근현대 선지식들의 진영(眞影)을 그려오고 있다. 산문의 바깥에서 산문의 안쪽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깊숙한 안쪽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가 선지식의 진영을 그리면서 다가가게 된 선의 세계다.

인연  
1993년 11월 10일, 함천 해인사. 20만의 인과가 성철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에 함께 하고 있었다. 시대를 격정했던 어른의 열반은 사바의 대중에게 큰 슬픔이었다. 그 자리에 김호석 화백도 함께 했다. 그는 한 시대가 보내야 하는 한 어른의 임종을 애도하기 위해 동시대의 동거인으로 가야산을 찾았고, 화가로서 그 숙연한 장면들을 스케치북에 담아왔다. 그리고 이듬해 여름, 이미 사바의 문턱을 넘어간 성철 스님과 인연이 시작된다.

"성철 스님의 진영을 모셔야 했는데 그릴 수 있겠습니까?"

20여 년 성철 스님을 시봉했던 원택 스님이 김 화백에게 성철 스님의 진영을 부탁해왔다. 김 화백은 지난 겨울 스님의 다비식이 떠올랐다. 성철 스님을 친견한 적이 없는 김 화백이었지만 화가로서의 손은 이미 스님의 모습을 더듬기 시작했다. 성철 스님의 진영을 그리기로 한 김 화백은 그날부터 '성철'의 삶을 따라가게 된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스님  
가고 없는 스님의 모습을 그릴 방법은 사진뿐이었다. 김 화백은 사진가 주명택 선생으로부터 스님의 사진 수백 장을 받았다. 방안 가득 스님의 사진을 붙여놓고 스님의 모습을 화가 김호석의 메모리에 저장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메모리'에 저장된 스님의 모습은 그림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노장님의 참모습을 보고 싶고, 그 모습을 묘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소. 스님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하던 화가의 몫입니다. 다만 화가 자신, 김호석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중 최고의 그림이었으면 합니다."

성철 스님의 진영을 부탁한 원택 스님의 주문이었다.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 현대불교사의 선명한 발자국 성철 스님. 그런 스님의 '얼굴'을 그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발자국 '성철'을 그려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인물의 궁극인 전신사조(傳神寫照)를 확인하는 말이며, 누구보다 김 화백은 그 의미를 잘

<p><b>연등속지 백색 1묶음</b></p> <p>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5,000원 판매가 10.5cm 6,000원 판매가 12cm 8,000원</p>	<p><b>한지 칼라등지</b></p> <p>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p>	<p><b>PVC등표 (100매)</b></p> <p>내지 12,000원 집계부착 20,000원 *크기: 8.5cm×21cm</p>	<p><b>봉축연꽃리본(100개)</b></p> <p>일 반 18,000원 고 금 27,000원</p>
<p><b>일반연잎 6,000</b></p>	<p><b>바림연잎 7,000</b></p>	<p><b>한지바림연잎 8,000</b></p>	<p><b>국산 LED전구(50개) 85,000원</b></p>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cm (50구) @ 65,000
- 25cm (50구) @ 65,000
- 30cm (50구) @ 65,000
- 35cm (50구) @ 70,000
- 40cm (50구) @ 73,000
- 50cm (50구) @ 75,000
- 1 m (50구) @ 90,000
- 2 m (25구) @ 80,000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바림·공단등(6cm) @ 2,500원 (60개이상)
- 바림·공단등(8cm) @ 3,000원 (30개이상)
- 바림·공단등(10.5cm) @ 6,000원 (16개이상)
- 바림·공단등(13cm) @ 13,000원 (6개이상)
- 바림·공단등(20cm) @ 35,000원 (2개이상)
- 바림·공단등(30cm) @ 90,000원 (1개이상)
- 황금등(6cm) @ 2,700원 (60개이상)
- 황금등(8cm) @ 3,300원 (30개이상)
- 황금등(10.5cm) @ 6,500원 (16개이상)
- 황금등(13cm) @ 15,000원 (6개이상)
- 청도비닐만월등 (100개) 160,000원
- 국산비닐만월등 (100개) 170,000원
- 청도연화만월등 (100개) 220,000원
- 국산장만월등 (100개) 220,000원
- 팔각만월등 (100개) 180,000원
- 비닐오색청사초롱 (100개) 240,000원
- 청도비단점등 (12cm)(100개) 350,000원

**금띠지 등표**  
판매가 800원 할인가 600원 (200개)  
\*종류: 판사대길, 소원성취, 학업성취, 사업성취, 삼재소멸 中 선택.  
\*하단부분은 생·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3.5cm×70cm>

# ... 진영을 인물화서 禪畵 경지로

다. 그는 인체가 지닌 가장 자연스러운 얼굴색을 내기 위해 스님의 태 자리에서 가져온 흙으로 물감을 만들고 그 물감으로 스님의 얼굴을 그렸다. 또한 김화백은 작품의 뒷면에 채색을 반복하여 인물의 자연스러운 얼굴색을 드러나게 하는, 잊혀진 전통초상화 기법인 배채(背彩)기법을 재현했다.

“나는 스님의 태 자리 흙으로 만든 물감을 형상이 그려진 종이의 뒷면에 수백 번을 바르고 말리기를 반복해 앞면으로 물감이 배어나오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피부질감은 물론 스님의 내면을 표현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태 자리의 흙으로 인물의 얼굴빛을 표현한다는 생각은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생각에서 출발했지만 실제 그림에서 거칠거칠한 그 인물의 피부색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초상화 기법의 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고려시대 불화를 그렸던 주요 기법이고, 조선시대 사대부초상화를 통해 초상화 왕국이란 명성을 얻게 한 배채법을 응용하여 새롭게 구현한 것입니다.”

마침내 완성된 <성철 대선사 진영-1994, 종이에 수묵담채, 253cm×183cm>은 사실적 묘사뿐만 아니라 그 인물의 내면까지 구현하려는 작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사롭게는 원래 스님의 주문을 따르는 동시에 우리 전통인물화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미술사적인 업적으로도 의미를 지니기에 충분한 것이다. 또한 이 작업은 전통형식의 피상적인 추종을 넘어선 것으로 현대적 표현성을 창의적으로 조화시킨 작가의 예술적 역량과 정신적 탐구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 화가 김호석

화가 김호석은 다섯 살 때 붓을 들기 시작했다. 서당의 훈장이었던 조부의 영향이 컸다. 그리고 스스로 화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진영’ 으로부터였다. 고향 정읍 집엔 사당이 있었고 소년 김호석은 매일 아침 조부와 함께 사당에 모신 고조부의 진영에 인사를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 김호석은 그 진영을 그림으로 바라보게 됐고, 이내 그 그림에 마음을 빼앗긴다. 소년 김호석은 진영을 그리는 화가가 되겠다고 서원한다. 그리고 그는 화가가 되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한 김화백은 재학시절인 1979년 중앙미술대전에서 <아파트>로 장려상을 수상한 이후 1980년대 ‘수묵운동’에 참여하며 수묵의 그림을 그

려왔다. 그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화, 역사적 인물화, 서민 인물화, 가족화, 군중화, 동물화 등을 그렸다. 그중에서도 성철 스님의 진영 제작 후 성철 스님의 다비식 스케치를 완성한 <그날의 화엄>은 고려시대 불화나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등과 같은 옛 전통화화의 서술적 표현양식을 토대로 한 작품으로 단순히 스님의 운구행렬과 다비식 과정을 담는데 그치지 않고 시대의 정신성과 삶의 모습을 담은 한 편의 대서사로 평가됐다.

### 선지식의 세계 들여다보며 선의 세계로

김화백은 성철 스님의 진영과 40여 점의 수묵화를 통해 단순한 외형 묘사를 넘어 전신(傳神)이 스며있는 존상을 구현해냈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진

### 성철 등 14 선지식 진영 그려

### 친견 한 번 없이 ‘성철’ 그려내

### 스님 태 자리 흙으로 얼굴 채색

### 종이 뒷면 칠하는 배채기법 계승

### 외형 넘어 전신(傳神)의 그림 위해

### 수행처 답사하고 인물과 함께 생활

### “스님 진영 붓만으로 그릴 수 없어

### 인물의 지난 삶과 옷투이 만나야”

영이라는 것이 ‘인물화’의 영역에서 선화(禪畵)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평론을 이끌어냈고, 그로 인해 그는 많은 문중과 스님으로부터 진영 의뢰를 받게 된다. 관음·법정·광덕·일타·지관·만해·지효·통광·청화·송담·명성·초의 스님까지. 그는 성철 스님의 진영을 그린 후 한국불교가 선지식이라 부르는 큰스님들의 진영을 계속해서 그렸다. 그는 선지식들을 만날 때마다 그 선지식의 삶을 오롯이 좇고 그들의 세계를 느끼기 위해 애를 썼다. 그렇게 한 순간 한 순간을 모아 열네 분의 진영을 완성했다. 그는 결국 열네 분 선지식의 삶을 산 것이다. 이렇듯 화가 김호석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산문 밖의 선’ 인 것이다.

“초상화(진영)는 대상 인물이 돌아가신 뒤 진영과

에 모실 목적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화가 자신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완성한 그림만이 다른 예배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업 내내 표현 대상자에 대한 공부는 물론 그분의 분신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가 관음 스님의 진영을 그릴 때, 그는 스님과 한 달 여를 함께 살았다. 그 또한 ‘관음’을 알아가기 위해서였다. 이렇듯 전신(傳神)의 진영을 그리는 것은 얼굴 몇 번 보고 사진 몇 장 찍어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것이다. 누군가의 내면을 그림에 투영하는 일, 그것도 깨달음의 세계에 닿아 있는 선지식의 내면을 온전히 투영한다는 것은 언어와 논리의 영역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세계인 것이다. 스님의 진영을 그리는 것이 다른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다른 점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노장의 진영을 시작하면 그 노장의 삶과 세계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욕심 아닌 욕심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도 하고 끌어앉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희망과 좌절을 오가며 어찌다 눈빛과 눈빛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노장의 언어와 스킷만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모여 한 노장을 그려냅니다.” 김화백은 오늘도 언어와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산문의 안 쪽 깊숙한 그 곳을 그리고 있다. 산문 밖에서.

### <모든 벽은 문이다> 3월 출간

그는 그렇게 지금까지 그린 진영과 그 진영을 그리면서 겪은 이야기를 엮어 지난 3월에 <모든 벽은 문이다-도서출판 선>을 출간했다. 책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본지에 연재한 <화폭속의 선지식>의 내용을 김화백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그림과 글들을 보냈다. 단순한 화집의 개념이 아닌 책에는 언어와 그림, 그리고 그 언어와 그림 너머에서 나는 인간과 인간의 고단하지만 아름다운 시간들이 들어 있다.

“사람을 그리는 것, 그것도 일가를 이룬 분들을 만나는 것은 보람이었고 늘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행복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였다. 나는 그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김화백은 책에서 쓰고 있다. 화가 김호석은 조선시대 전통초상화기법을 오랫동안 연구해 현대적으로 계승한 한국미술의 소중한 붓 중 하나이다. 그 붓끝에서 많은 선지식의 세계가 오롯이 남겨져 전해지길 바란다.

박도일 수필가

## 전법일기

### 참회 속에 새 삶이 이어지니

교도소 교정활동에 발을 디딘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교도소에서 첫 법회를 진행할 때였다. 오전에는 이미 경찰서에서 범죄없는 세상만들기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 상태였다. 강단에 서자 어떤 법문을 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재소자들에게 어떤 말이 와 닿을지 고민하다가 내가 몸소 체험한 인연법을 털어 놓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가의 길을 떠났다. 이후 6년이 지나, 아들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떠나게 된 사연이 있다.

법문을 하면서도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다. 나는 내 아들을 통해 옛날 내 부모에게 불효한 일을 스스로 반성하고 그런

차마 이런 상황을 전할 수 없었다. 그 여성에게 나는 “성실한 삶을 통해 새로운 원동력을 얻는다면 그 것이 업을 해소하는 길이고, 또 다른 인연이 찾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급하게 청주교도소로 자리를 옮기게 됐지만 이 여성재소자의 상담은 계속 하기로 했다. 이 여성은 전일작업반으로 자리를 옮겨 성실히 생활을 했고, 이후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출소 후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금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했다.

젊은 교정위원들에게 선배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정교화 대상자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먼저 재소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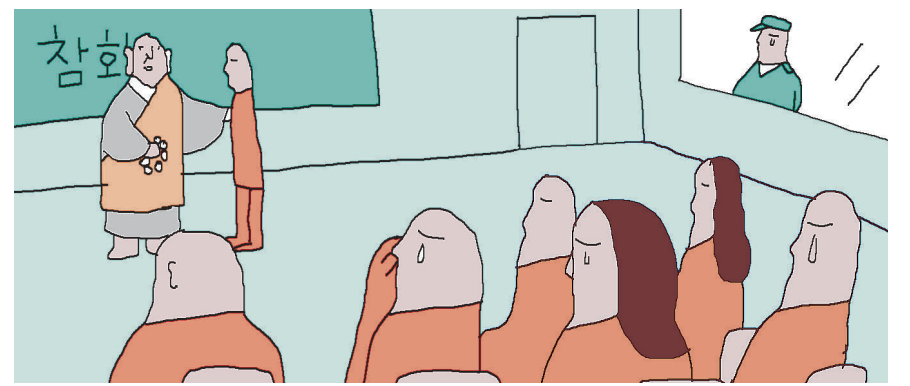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실수를 만회하고 싶다는 이야기로 법회를 마쳤다. 큰 함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고, 모두가 함께 울고 말았다.

한 재소자는 “스님의 법문에서 업은 스스로 지은 만큼 자신이 그 자식에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무겁고 두렵다”며 울부짖었다.

나는 참회와 함께 남을 위해 내 몸을 희생하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주문했다. 이 재소자는 이후 모범수가 되어 형기를 대폭 줄이고 출소했다.

우리 속담에는 죄는 미워하지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라 한다. 참회를 통해 발심한 이들은 또다른 우리 주변의 이웃인 것이다.

처음 교정활동을 진행한 청주 여자교도소에서도 참회의 삶으로 한 여성을 계도한 일이 있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의 변심으로 사기를 일으키게 됐고, 그로 인해 사회와 격리된 상태였다. 안타까운 사연으로 젊은 청춘을 그늘에서 지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면회를 요청하는 말에 그 남자친구는 화를 내며 연락을 끊었다.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과 함께, 이들이 진심으로 이에 대해 참회해 과거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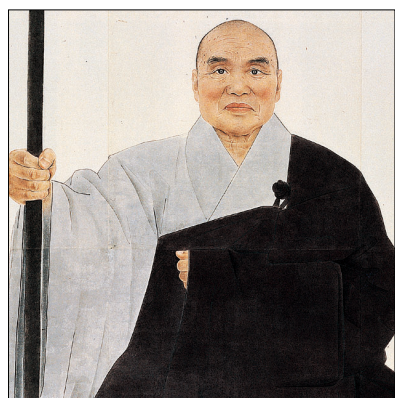
하지만 대부분의 교도소에서는 단순한 작업지시를 전하고, 또 법회에서도 부처님 법문과 지식을 전하는데만 치우치고 있다. 지식을 전달하고 교리를 말하기보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공감해 발심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정인도 하루 이틀 정도의 수강생활을 함께 체험하고 긴 시간을 재소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참회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점수를 정해 특별 가석방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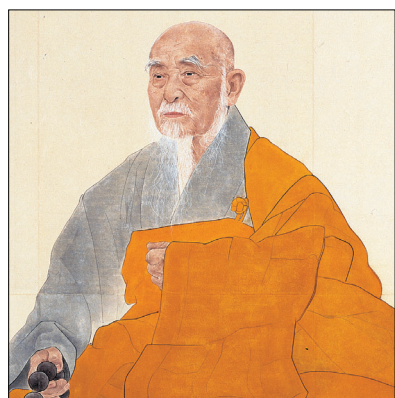
결국 교정교화는 재소자들이 스스로 참회의 마음을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소자의 약한 마음이 스스로 소멸될 때 밝은 사회를 위해 봉사하려는 발심이 생긴다. 참회로 이끌고 정서적 불안함을 따듯한 부모의 마음으로 녹이는 교정위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혜철 스님(육전 대성사 주지)

### 김호석 화백의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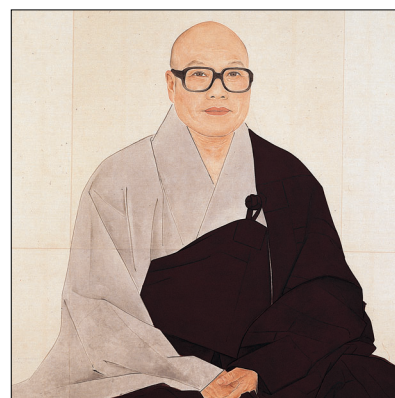
성철 스님



관음 스님



광덕 스님



일타 스님

**법민스님의 산사 음향회 CD 발매**

법민스님은 2004년 법어사 계명암오솔길을 직접 사하여 찬불가음반을 발표하고 2006년 목탁 노래 방송 활동 중이며 2016년 3월에는 일본 고베 컨벤션 센터에서도 콘서트공연을 가졌다.

현재 전국가요대행진 등 복직TV, 실버TV, 아이넷TV, MBC넷 등 방송 활동과 산사음향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수목공으로 소원, 업보, 님이오는 소리, 상념 등이 있다.

**산사음향회 CD 목차**

- 1 목탁새
- 2 계명암 오솔길
- 3 백일기도
- 4 소원
- 5 업보
- 6 상념
- 7 사랑은 주는거야
- 8 님이 오는 소리
- 9 목탁새 (slow)
- 10 목탁새 경음악

각종 사찰행사에 음성공양 원하시는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공민회 다산불원**

부산시 중구 광복로 35번길 36 (4층)  
051-231-6455  
010-9409-0016

**왜? 울금(강황)과 Phytoncide(피톤치드, 편백수) 인가!**

『대리점 및 소매 점포/사찰담례품 창업주 모집』 불황을 타개 할 참신한 제품입니다.

**불 도량에 알맞는 품격있는 제품입니다.**

**울금365**는 울금, 황금, 미강으로 구성되었으며 찌든 음식과 스트레스, 음식의 과잉섭취, 각종 공해에 찌든 현대인에게 꼭 권장할 만한 건강식품입니다.

울금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을 고려했습니다.  
3box 6병(3개월 분) = 89,000원  
1box 2병(1개월 분) = 39,000원

- 울금과 강황을 이용한 식품일체(동분야 국내최고 권위자) 피톤치드, 편백수(국내 최대생산라인 확보, 성분타의 추종을 불허한 약용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다수(특허등록) 당찬하루, 팔자보(남자의 팔자), 울금365 등

**100% 천연편백수 산림욕장을 실내로!**

아토피, 피부미용, 새집증후군, 천연방향제, 의류 및 침구류, 신발장, 화장실등의 향균, 탈취

70ml(휴대용)×1병 = 3,900원 / 6병×1box = 21,600원  
200ml(가정용)×1병 = 8,000원 / 2병×1box = 15,000원  
500ml(대용량)×1병 = 15,600원

오랜 전통과 기술이 축적된 산학협력 및 정부지원 업체입니다.

**SanchoHerb NAVER** 산초허브 검색

문의전화 T. 055) 632-2233 F. 055) 635-6500  
H. 010-3215-3998 www.sanchoherb.co.kr  
농협 351-0633-0485-13 산초허브(주)

“지성으로 기도하면 한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 준다”는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신 해동제일의 기도 성지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산신제 봉행

팔공산의 영험한 기운이 나투기를 기원하는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산신제 봉행

일자 - 2016년 4월 9일(토) 9시

문의 - 053.851.1868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경상북도 와촌면 갓바위로 699 053)851-1868~9